

# 우리나라 신문에 나타난 미디어 지도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장 영 진\*

## Characteristics and Growth of Media Maps in Korean Newspapers

Young-jin Ja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저널 지도학(journalistic cartography)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하는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성장 과정과 미디어 지도의 유형 및 내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도 제작술의 진전에 따른 미디어 지도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지도는 한성순보에 등장하는 '지구전도'이며, 출현 시기는 1880년대로서 영미권 미디어 지도의 출현 시기와 유사하다. 둘째,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측면과 관련된 출현 빈도의 시계열적인 추이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내용 면에서는 국제 분쟁 및 군사적 충돌에 집중되었던 신문 발행 초기에 비하여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셋째, 지도의 형태는 필사 지도로부터 CTS 하에서 제작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지도 제작 환경의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주요어** : 저널 지도학, 미디어 지도, 지구전도, CTS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summarize the progress of Journalistic Cartography and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growth and the transition of the forms and contents of the media maps in Korean newspapers. An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maps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igujeondo(地球全圖)' in *Hanseongsunbo(漢城旬報)* in 1880s is the first media map in Korea. Secondly, the number of the media maps in Korean newspapers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s the time goes, the contents of the media maps have been varied. Thirdly, the representation of the media maps has their own spec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from the handwriting to CTS.

**Key Words** : journalistic cartography, media map, *Jigujeondo*, CTS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이나 잡지, TV 등의 대중매체에는 어김없이 지도가 등장한다.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지도는 다른 유형의 지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그래픽 자료와 함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저널리즘 도구이다. 지도는 뉴스 기사와 특집 기사(feature)를 비롯하

여 일기도와 광고 및 시사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기사를 구성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용됨은 물론 지도 자체만으로도 기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이러한 지도는 지리학 분야의 학술지나 전공 서적에 등장하는 지도와 달리 디자인과 내용의 측면에서 독특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신문이나 잡지, TV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지도를 일반적으로 'news map, media map 또는 journalistic map(이하 미디어 지도 또는 뉴스 지도)'이라고 하며,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지도에 관한 연구 분야를 지도학 가운데서도

\* 서울 중경고등학교 교사(Teacher, Jungkyung High School in Seoul), congo700@hanm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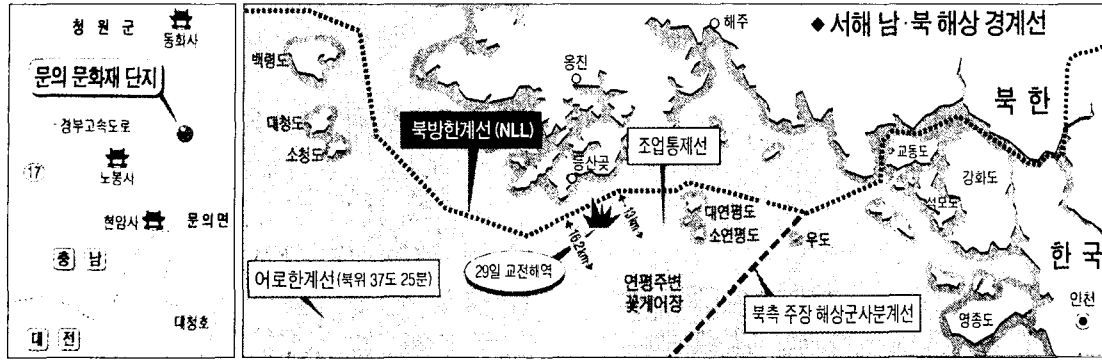


그림 1. 위치지도(locator map)와 설명지도(explanatory map) (조선일보 2002년 6월 9일; 조선일보 2002년 7월 4일)

'Journalistic Cartography(이하 저널 지도학)' 라고 한다<sup>1)</sup>(Gillmartin, 1985; Green, 1999; Monmonier, 1989).

미디어 지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미디어 지도는 독자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간을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독자는 미디어 지도를 통해 기사의 지리적 의미와 맥락을 알게 된다. 미디어 지도는 단순히 위치를 보여주는 것(locator map)으로부터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 기능(explanatory map)도 제공한다(그림 1). 또한 미디어 지도는 다른 지도와 달리 지도의 내용과 디자인 그리고 효과 등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다(Gillmartin, 1985).

미디어 지도는 전체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미디어 지도에 대한 연구는 영미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특히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1984년에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지도의 결합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영국의 지리학 및 지리교육 학회들<sup>2)</sup>은 지리정보의 그래픽 표현에 대한 '미디어 지도 감시(Media Map Watch)'를 위해 협력하면서 뉴스 지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Balchin, 1985). 이에 앞서 1983년에는 미디어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National Geographic Society가 언론 기관에 정교하게 제작한 지도를 무료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Monmonier, 1989).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에 최초의 근대신문

인 한성순보가 발행된 이래 오늘날에는 일간지만 해도 122종에 달하게 되었고(2002년 10월 현재),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지도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 저널리즘 및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도의 내용과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들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지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중매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초기의 신문으로부터 최근에 발행된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에 등장하는 초기 지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성장과 지도의 내용 및 유형을 고찰하고 지도 제작술의 진전에 따른 미디어 지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 초기 미디어 지도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과 인지도의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중앙지(전국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친일지와 지방지, 지하신문, 외국어 신문 그리고 해외 교포지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신문역사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신문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한 연구 대상은 1880년대부터 개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초기 개화 운동의 결실로 창간된 한성순보를 비롯하여 신문 발행 주기를 7일로 변경함으로써 서양의 시간개념을 채택한 한성주보,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과 그 전신인 협성회 회보 등이다. 또한 한글 전용 신문으로서 중류층과 부녀자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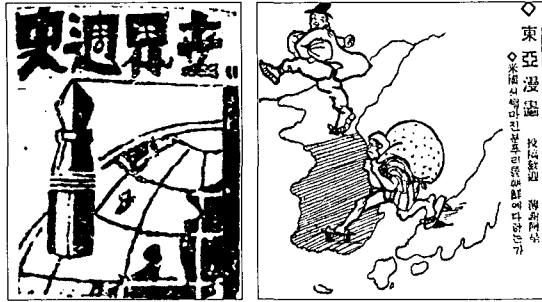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에서 제외된 지도 아이콘과 시사만화의 지도  
(조선일보 1933년 7월 24일; 동아일보 1924년 5월 25일)

독자층이었던 제국신문과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 황성신문, 영국인 Bethel이 창간하여 한말 최대의 항일 민족지로 성장한 대한매일신보, 천도교의 기관지였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약한 대신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내정개혁에 적극적이었던 만세보 그리고 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항일 민족지 대한민보 등이다. 한일합방과 함께 대부분의 민족지가 폐간된 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신문 자료의 유형을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해당 신문사에서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및 일부 원본을 이용했고 이외의 신문은 한국신문연구소, 한국학문헌연구소 등에서 발행한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각 신문의 발행 기간과 발행 주기, 자료 유형 및 출판

기관은 표 1과 같다(차배근 외, 2002; 최기영, 1991; 한국프레스센터, 1995).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지도는 호의를 제외한 뉴스 기사 및 특집 기사에 실린 지도와 위성사진, 조감도 등이며, 건물의 평면도와 천문도, 광고 지도, 시사 만화의 지도 등을 비롯하여 기사 내용을 암시하거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기획기사 및 고정란에 이용된 지도 아이콘(icon)은 제외하였다(그림 2).

### 3) 저널 지도학과 미디어 지도

#### (1) 저널 지도학의 연구 동향

뉴스 지도나 광고 지도 등 지리정보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1950년대에 시작된 초기 연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디어 지도의 성장과 역할, 디자인의 특성, 기술의 변천에 따른 지도 표현 그리고 지도학의 관습에 비추어 보아 지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함을 지적하는데 주목한 연구 분야가 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광고에서 지도의 역할과 이용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1984년 '미디어 지도 감시(Media Map Watch)'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된다.

Anderson and Anderson(1986)은 일간지의 고정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일기도에 주목하여 일기도에 할애되는 지면과 표준적으로 제시되는 항목 그

표 1. 연구대상 신문

신문 명칭	발행 기간	검토 범위	발행 주기	자료 유형 (출판기관)
한성순보	1883~1884	전체	순간	영인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한성주보	1886~1888	전체	주간	영인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독립신문	1896~1899	전체	격일간→일간	영인본 (LG상남인론재단)
협성회회보·매일신문	1898~1899	전체	주간·일간	영인본 (한국신문연구소)
제국신문	1898~1910	1898~1902*	일간	영인본 (한국학문헌연구소)
황성신문	1898~1910	전체	일간	영인본 (한국문화개발사)
대한매일신보	1904~1910	전체	일간	영인본 (한국신문연구소)
만세보	1906~1907	전체	일간	영인본 (한국학문헌연구소)
대한민보	1909~1910	1909~1910**	일간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조선일보	1920~2002 현재	1920~2001	일간	마이크로 필름, 축쇄판 (조선일보사)
동아일보	1920~2002 현재	1920~2001	일간	마이크로 필름, 축쇄판 (동아일보사)

\* 1902년 이후 영인본 미간행.

\*\* 1910년 3월 이후 8월(중간)까지 영인본 미간행.

자료: 차배근 외, 2002; 최기영, 1991; 한국프레스센터, 1995.

리고 지면의 확대 여부 등을 밝히고자 했다. 지도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Leimer(1982)는 지도 제작의 제약요소로서 당대의 기술적 한계와 지도 제작자 개인의 숙련도 등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뉴스 지도가 전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성에 따라 지도의 출현 빈도가 증가했던 제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등 군사적 충돌 시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뉴스 지도 및 지도 제작자에 대해 깊이 있는 개관을 한 Ristow(1957)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 전쟁 관련 지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뉴스 지도가 전쟁의 확산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세계 뉴스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안목을 제시한 Porter(1985)의 연구도 있다(Leimer, 1982; Porter, 1985; Patricia, 1985; Green, 1999). 한편, Gillmartin(1985)은 하나의 사건을 다룬 여러 신문·잡지의 지도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1983년 대한항공 피격사건을 다룬 지도들 사이의 도법과 방위의 오류를 지적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Monmonier(1989)는 *Maps with the New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Journalistic Cartography*라는 저서를 통해 뉴스 지도의 성장과 특성 및 기술의 변천이 뉴스 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었다.

미디어 지도에 대한 두 번째 연구는 1970년대에 등장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미디어 연구와 문화지리학 및 정치지리학 등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분야이다. 지도를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표면에 드러난 텍스트의 해체를 통해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를 규명하기 위해, 지도 제작이 기반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지도가 갖는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이데올로기적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Harley(1990, 1992)는 단순히 지도를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결과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도의 기반이 되는 광범위한 문화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지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도는 인간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진 담론으로서, 이데올로기라는 가면을 통해 세계를 표현'하며, '이러한 관점에 따른 지도 연구는

지도가 반영하고 채택하는 사회-정치적 관습을 파헤친다'고 주장한다. 한편, Rundstrom(1991)은 Harley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텍스트로서의 지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도가 기초하고 있는 광범위한 기술적, 사회적 과정을 무시하는 포스트모던적 접근에 비판적이다. 그는 '과정 지도학(process cartography)'이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인위적 산물로서의 지도는 지도화 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지도화 과정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문화적 과정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여 지도화라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는, 유럽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럽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로 표현할 때 독립된 별개의 대륙으로 나타내는 점에 주목한 Jordan(1973)의 연구를 비롯하여, 전후 냉전 시대에 미국이 새롭게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지도의 역할에 관심을 둔 Henrikson(1980)의 연구가 있다(Harley, 1992; Rundstrom, 1991; Jordan, 1973; Henrikson, 1980; Vujakovic, 1999) 또한, Vujakovic(1999)은 1990년대 영국 뉴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유럽 지도를 통해 새로운 유럽의 정체성과 지정학적 담론이 파급되는 과정에서 지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연구 분야 가운데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 미디어 지도의 특성

일반적으로 미디어 지도는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활자의 단조로움을 감소시켜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흥미로우며 혁신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주의를 끈다. 또한 다른 지도학 분야에 비하여 독자층이 다양하고 독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내용과 단순한 기호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 지도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리 정보를 전달한다(Green, 1999). 미디어 지도는 기사의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을 하는가 하면,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지도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참고자료로서 광범위한 맥락의 공간적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활자로 된 기사가 빠지고 지도가 전체 기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목적에 이용되기

도 한다.

하지만,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지도는 지도학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지도 감시'의 결과를 정리한 Balchin (1985)에 따르면, 기사에서 지도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지도가 게재되었다 해도 대부분의 지도는 제목이나 캡션이 누락되어 지도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찾아야 하고, 도법과 경위선망이 제시되지 않아 대륙적 규모의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축척이 누락되어 거리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면, 방위와 범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명이나 경계선을 잘못 표시하는 등 지도가 부정확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작은 지도 (postage-stamp size)가 많으며, 지도와 기사가 서로 상이한 지면에 게재되어 독자가 이해하는데 번거롭게 만들기도 한다. 한편,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지도는 단순화와 일반화가 지나치고 화면에 제시되는 시간이 짧다. 특히 일기도의 게재 시간이 짧다는 비판이 높다. 미디어 지도는 신문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유수한 신문과 주간지는 지방 신문이나 중소신문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과 같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지도는 개성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디어 지도는 제작 기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정교한 양질의 지도를 만드는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 지도제작자가 만들기 보다 그래픽 아티스트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정확도의 측면에서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도는 지도제작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래픽 아티스트는 지도학 관련 연수를 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지도 제작자가 미디어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어떤 독자도 지도책을 옆에 두고 신문을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도는 지도학의 원리를 기초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의 역할과 성공은 지도의 본질은 물론, 지도가 게재되고 사용되는 맥락과 매체에 의해 규정된다. 미디어 지도는 지도를 준비하는 기간과 매체의 한계, 지도 이용자의 폭과 독자가 지도를 읽는 시간 등에서 다른 지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지도에 대해 지도학의 관점에서 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랜 세월동안 미디어 지도의 발달과 맥을 같이해온 표현의 자유와 공간정보 전달매체로서의 성과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지도학적으로 정확한 지도라 하더라도 독자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도학적 관습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정확하지만 혁신성이 결여된 지극히 평범한 지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에 축척이나 방위를 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도법의 명칭을 써넣는 일이 하나의 사실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다(Green, 1999). 한편, 최근에는 전산화를 통해 지도 제작의 수월성이 확보되고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지도 사이의 유사성이 증가하여 지도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지도 제작자의 독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2. 우리나라 미디어 지도의 성장

### 1) 초기 미디어 지도

우리나라 신문에서 미디어 지도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독립신문, 협성회회보·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등 9개 신문의 전체 지면을 검토하였다<sup>5)</sup>. 그 결과 한성순보 창간호(1883. 10. 31.)에 게재된 地球全圖가 최초의 미디어 지도로 밝혀졌다(그림 3). 근대 신문의 창간과 동시에 미디어 지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전도는 시사적인 기사라기보다 오늘날의 특집기사나 기획기사에 등장하는 지도이다. 당시 개화파는 국민의 견문을 넓힐 목적으로 지구, 천문, 지리, 과학 등에 대한 기사를 싣고 그래픽 자료를 게재하였다. 이 가운데 지구전도는 목판 인쇄물로서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전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지구전도는 신문 인쇄에 활용된 최초의 목판화이자 신문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최인진, 1992)<sup>6)</sup>. 두 번째 지도는 18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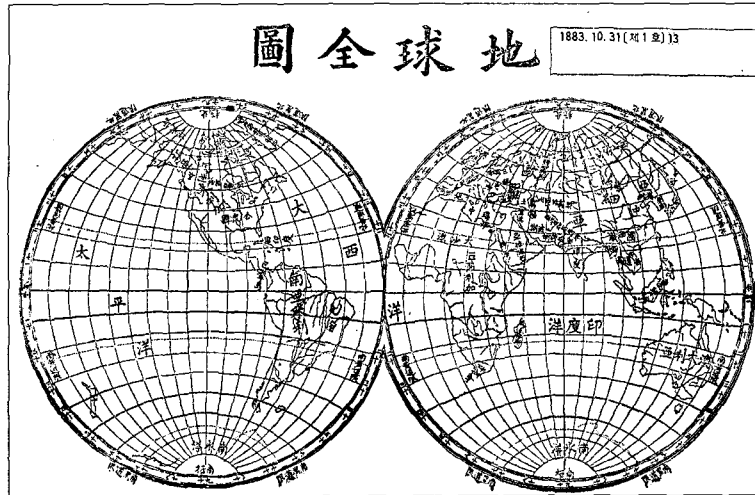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지도(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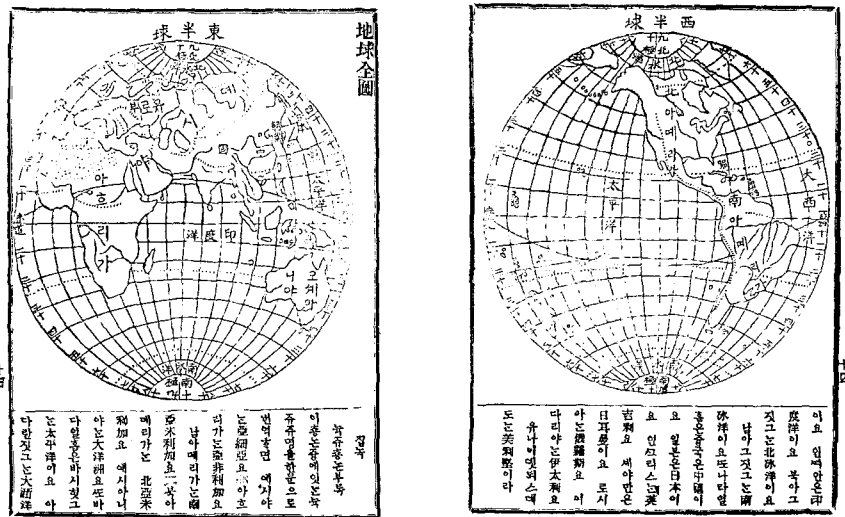


그림 4. 한성주보의 지구전도(1886년 2월 1일)

창간된 한성주보의 제 2호에 실린 地球全圖이다 (그림 4). 한성순보에 실린 지도와 유사하나 지역 명을 나타내는데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동반구와 서반구를 각각 상이한 면에 본문과 함께 인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에서도 1870년대까지 미디어 지도가 등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Monmonier, 1989), 우리나라 미디어 지도의 출현 시기는 그다지 늦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지도는 1909년 9월 30일자 대한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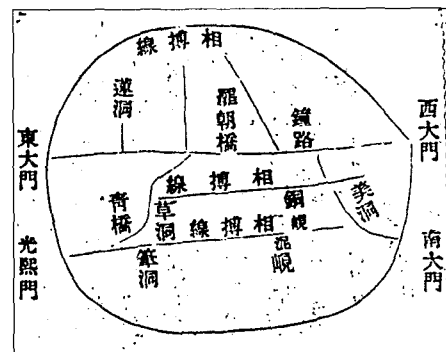


그림 5. 대한민보에 게재된 뉴스지도(1909년 9월 30일)

에 실린 지도이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지도가 특집기사와 함께 실린 것인 반면, 대한민보의 지도는 수도관 문제를 다룬 뉴스기사와 함께 게재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뉴스지도라고 할 만하다(그림 5).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및 대한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에서는 다양한 그래픽 자료가 등장하나 지도는 단 한차례도 게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지도를 비롯한 시각물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 2) 미디어 지도의 성장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민족지들이 일제에 의해 폐간된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가운데 창간 시기가 가장 앞선다. 따라서, 미디어 지도의 성장은 두 신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성장을 출현 빈도의 시계열적인 추이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1920~2001년 동안 각 연도별 1월과 7월 신문을 사례로 지도가 포함된 기사의 수(월평균)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6). 개별 지도보다 지도가 게재된 기사를 샘플 단위로 하였으며 일기도는 제외하였다. 지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크고 대표적인 지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두 신문사는 창간 시기와 폐간 및 복간 시기가

유사할 뿐 아니라 지도의 출현 빈도에서 시기별로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두 신문사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신문 제작 기술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다. 두 신문에서 지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각각 동아일보 1921년(연간 3회), 조선일보 1922년(연간 1회)으로 초기부터 지도가 이용되었다. 지도의 출현 빈도는 초반에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30년대에 들어 높아지는데, 이는 지도의 내용으로 보건대 중국의 국공 내전 및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중국 내 세력 판도에 관한 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40년 말에는 양 신문사가 폐간되어 1945년 11월(조선일보)과 1945년 12월(동아일보)에 각각 속간되었으므로<sup>7)</sup>, 이 시기는 그래프에서 제외하였다. 해방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의 혼란기에는 일간신문지면이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감소했고(차배근 외, 2002), 신문 제작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지도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950년대 말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신문지면이 증가하면서(그림 7) 지도의 수도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지도의 사용이 급증한 것은 지면의 증가와 더불어 컴퓨터를 활용한 기사 작성 및 조판이 가능한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의 구축으로 과거에 비해 지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고 다양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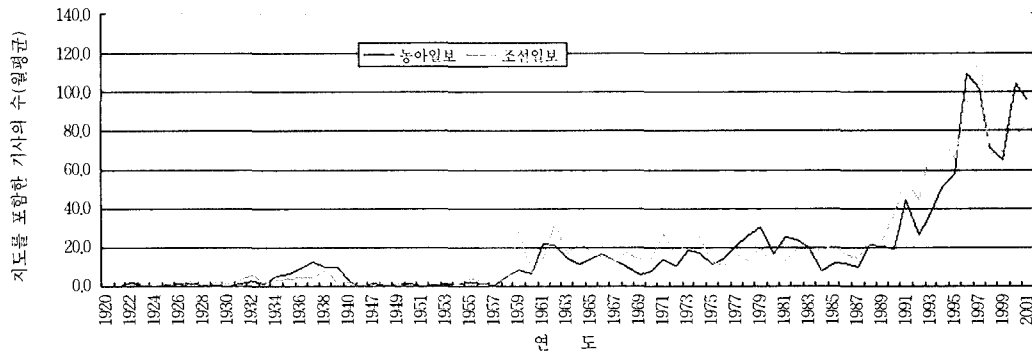


그림 6.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미디어 지도의 추이

주: '지도를 포함한 기사의 수'는 각 연도별 1월과 7월의 평균임. 단 자료 누락으로 동아일보의 1930, 1950년과 조선일보의 1946, 1950년은 1월 자료를 이용하였고, 동아일보의 1920, 1921, 1937년과 조선일보의 1920, 1951년은 7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던 1941~1945년은 그래프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동아일보사 및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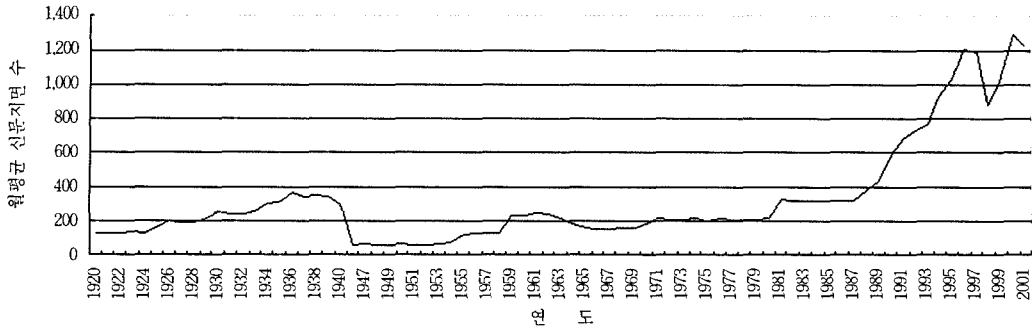


그림 7. 월평균 신문지면의 추이(동아일보)

주: '월평균 신문지면 수'는 각 연도별 1월과 7월의 평균임. 단, 자료 누락으로 1930, 1950년은 1월 자료를 이용하였고, 1920, 1921, 1937년은 7월 자료를 이용했으며,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던 1941~1945년은 그래프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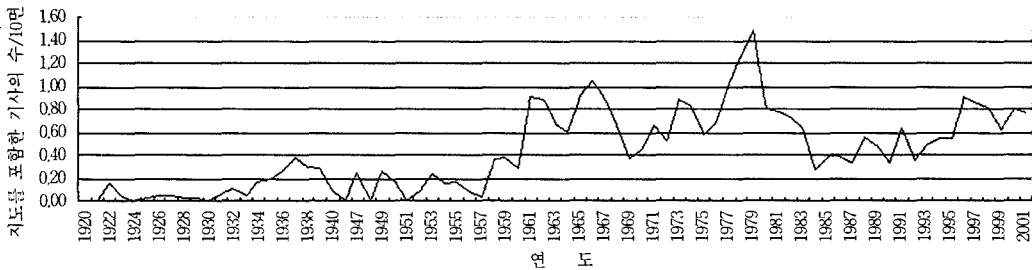


그림 8. 신문지면 10면 당 지도가 게재된 기사의 추이(동아일보)

주: '지도를 포함한 기사의 수/10면'은 각 연도별 1월과 7월의 평균임. 단, 자료 누락으로 1930, 1950년은 1월 자료를 이용하였고, 1920, 1921, 1937년은 7월 자료를 이용했으며,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던 1941~1945년은 그래프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한 명의 미술 기자가 하루에 1~2개의 정보그림을 완성했으나 CTS 하에서는 4~5개의 정보 그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김정환, 1998).

이상과 같이 지도를 포함한 기사의 월평균 총수가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지면 10면 당 지도가 게재된 기사 수를 조사해보면(그림 8)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도의 증가 속도가 신문 지면의 증가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다.

### 3) 미디어 지도의 유형과 내용의 변화

시기별로 지도 유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된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 간격으로 사례 연도를 선

정하여 지도의 유형별 분류를 시도했다. 지도의 유형은 크게 지도, 위성사진, 조감도 등으로 나누었다. 표 2에 따르면, 창간이후 197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지도이외에 다른 형태의 자료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면, 위성사진과 조감도 등이 부분적으로 등장하여 지도 표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자료에서 '지도' 항목으로 분류한 것 가운데 동아일보의 7.7%와 조선일보의 8.3%는 특정 내용을 담기보다, 활자화된 기사위에 지역의 윤곽을 선이나 색으로 나타냄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식적인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지도는 1990년대 이후에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한편, 미디어 지도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표 2. 지도의 유형별 비중

단위: 지도의 수 (%)

연도	구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도	위성사진	조감도	합계	지도	위성사진	조감도	합계
1922		4 (100.0)	0 (0.0)	0 (0.0)	4 (100.0)	0 (0.0)	0 (0.0)	0 (0.0)	0 (0.0)
1931		3 (100.0)	0 (0.0)	0 (0.0)	3 (100.0)	7 (100.0)	0 (0.0)	0 (0.0)	7 (100.0)
1940		5 (100.0)	0 (0.0)	0 (0.0)	5 (100.0)	4 (100.0)	0 (0.0)	0 (0.0)	4 (100.0)
1952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100.0)
1960		13 (100.0)	0 (0.0)	0 (0.0)	13 (100.0)	14 (100.0)	0 (0.0)	0 (0.0)	14 (100.0)
1970		17 (100.0)	0 (0.0)	0 (0.0)	17 (100.0)	29 (100.0)	0 (0.0)	0 (0.0)	29 (100.0)
1980		32 (94.1)	2 (6.9)	0 (0.0)	34 (100.0)	29 (100.0)	0 (0.0)	0 (0.0)	29 (100.0)
1990		38 (97.4)	0 (0.0)	1 (2.6)	39 (100.0)	73 (97.3)	0 (0.0)	2 (2.7)	75 (100.0)
2000		205 (98.6)	2 (0.9)	1 (0.5)	208 (100.0)	152 (98.1)	2 (1.3)	1 (0.6)	155 (100.0)

주: 지도 유형별 비중은 해당 연도의 1월과 7월 신문 자료를 검토한 결과임. 1920, 1921, 1930, 1950, 1951년은 신문 자료의 부분적인 자료 누락으로 비교가 곤란하여 1922, 1931, 1952년을 사례로 하였음.

자료: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표 3. 지도의 내용별 비중

단위: 지도의 수 (%)

항 목	구 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1927	1967	2001	1927	1967	2001
국제 정세·분쟁·정치·국방		13 (56.5)	41 (35.0)	230 (19.9)	13 (68.4)	101 (58.4)	189 (19.5)
사고·범죄		0 (0.0)	18 (15.4)	41 (3.6)	0 (0.0)	24 (13.9)	33 (3.4)
경제·자원		0 (0.0)	15 (12.8)	55 (4.8)	0 (0.0)	4 (2.3)	71 (7.3)
주택·지역개발·지역·교통		8 (34.8)	22 (18.8)	400 (34.7)	2 (10.5)	21 (12.1)	276 (28.5)
보건·복지·교육·행정		0 (0.0)	3 (2.6)	43 (3.7)	2 (10.5)	2 (1.1)	31 (3.2)
재해·환경·과학		1 (4.3)	15 (12.8)	87 (7.5)	1 (5.3)	9 (5.2)	73 (7.6)
관광·여가·문화·스포츠		1 (4.3)	2 (1.7)	277 (24.0)	0 (0.0)	11 (6.4)	261 (27.0)
기 타		0 (0.0)	1 (0.9)	21 (1.8)	1 (5.3)	1 (0.6)	34 (3.5)
계		23 (100.0)	117 (100.0)	1,154 (100.0)	19 (100.0)	173 (100.0)	968 (100.0)

주: 지도의 내용별 비중은 1927년, 1967년 및 2001년 1월~12월의 전체 기사를 검토한 결과임(일기도 제외).

자료: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마이크로 필름과 축쇄판.

세 개 연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연도는 1927년과 1967년 및 2001년이다. 양 신문은 창간 직후 연간 0~8, 9회에 걸쳐 미디어 지도가 등장했으나 1927년 들어 지도의 출현 빈도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기사의 내용별 비교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먼저 1927년을 사례 연도로 선정하고 최근 2001년과 그 중간 시기인 1967년을 비교해 보았다. 일제 강점기인 1927년에는 지도가 게재된 기사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국제 정세·국제 분쟁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반면(동아일보: 56.5%, 조선일보: 68.4%), 사고·범죄, 경제·자원, 관광·여가·문화·스포츠 분야의 경우에는 지도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동아일보의 1927년도 기사에서 주택·지역개발·지역·교통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조선 수리조합 실황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도별 수리시설 공사에 대한 기획기사가 게재되었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편, 1967년을 거쳐 최근에 이르면서 국제정세·분쟁·정치·국방 항목은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관광·여가·문화·스포츠 관련 항목이 빠르게 증가하여 주택·지역개발·지역·교통 항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신문 발행 초기에 비해 지도화된 기사의 주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Monmonier(1989)가 The Times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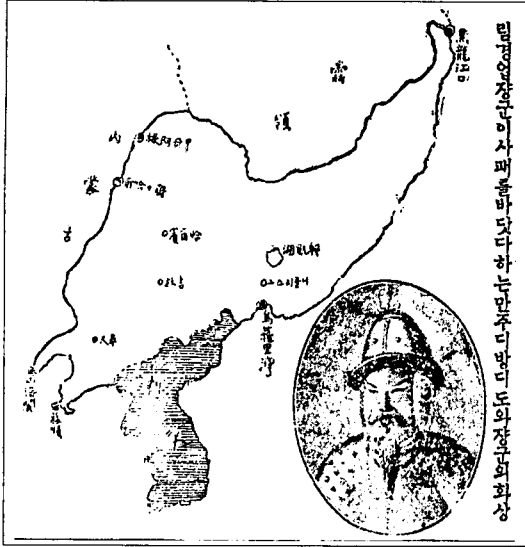


그림 9. 동아일보 최초의 지도(1921년 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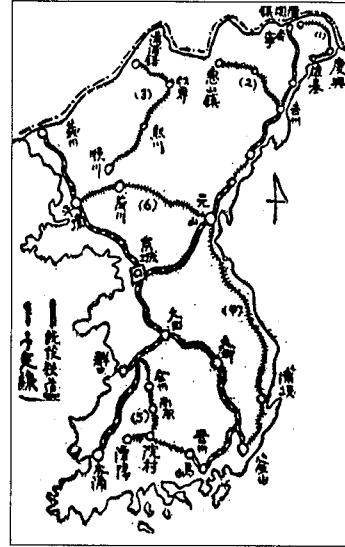


그림 10. 윤곽이 부정확한 필사지도 (동아일보 1926년 11월 27일)

비롯하여, New York Times, Globe and Mail, Wall Street Journal, Christian Science Monitor 등 5개 신문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3. 지도 제작 기술과 미디어 지도의 특성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하는 미디어 지도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당시의 지도 제작술과 관련지어 고찰하기 위해 시기별로 몇 개의 지도를 선정하여 제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지도가 최초로 등장한 19세기의 지도와 1920년대 이후의 필사지도, 사진 식자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지도 그리고 최근의 CTS 지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1) 19세기의 미디어 지도

한성순보에 실린 최초의 미디어 지도인 지구전도는 볼록판의 목판인쇄로 제작되었다. 이후의 지도 가운데에는 목판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미디어 지도 가운데 유일한 목판 인쇄물로 판단된다. 보통 24쪽 분량의 책자 형태인 한성순보에서 일반 기사는 납활자를 이용하여 활판 위에 잉크를 바르고 직접 종이를 얹어 압력을 가하는 수동식 활판 인쇄를 했다. 하지만 목판으로 조판된 지

도는 활판과 합판이 곤란하여 별지에 목판 인쇄를 한 다음 일반 기사와 함께 제본되었다(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최인진, 1992). 다음으로 등장하는 한성주보의 지구전도는 한성순보의 지구전도와 달리 신문 한 면에 활자와 함께 게재되었다. 이는 종이에 그린 지도를 금속 제판하여 본문과 함께 합판한 후 인쇄했음을 의미한다(그림 3, 4).

#### 2) 필사 지도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및 대한민보 이후 미디어 지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이다. 두 신문에서는 창간 당시부터 납활자를 이용한 활판 인쇄를 통해 신문을 발행했다. 초기에는 수동식 활판인쇄기를 이용했으나 곧이어 운전기를 도입함으로써 대량인쇄가 가능해졌다. 납활자를 이용한 점에서 한성순보와 다를 바 없으나, 문선과 조판, 지형, 연판 공정을 통해 인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지도는 수작업을 통해 제작한 필사 지도를 다른 그래픽 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속판에 제판한 후 본문과 함께 인쇄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로 미루어보건대, 이 시기에는 별다른 제도 용구 없이 기존의 지도를 보고 그리거나 얇은 종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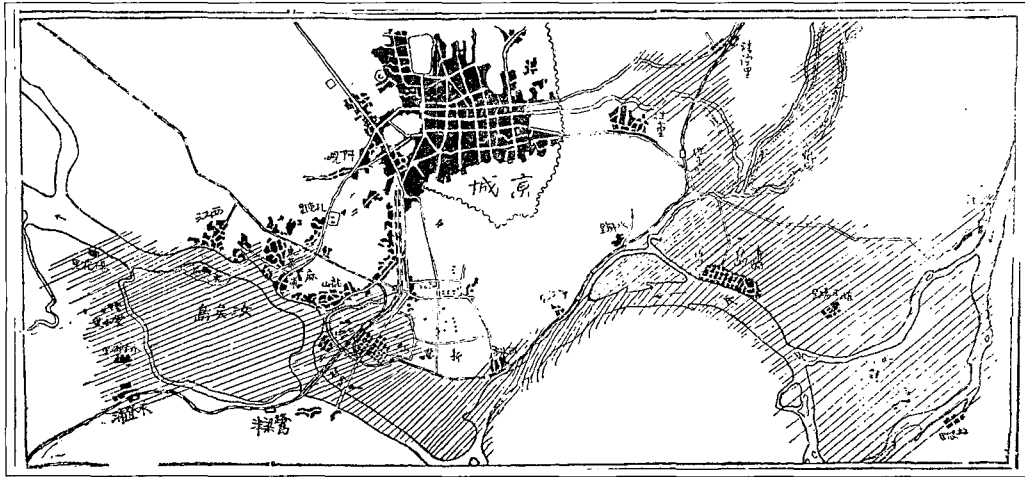


그림 11. 수해지역을 표현한 필사지도(조선일보 1925년 7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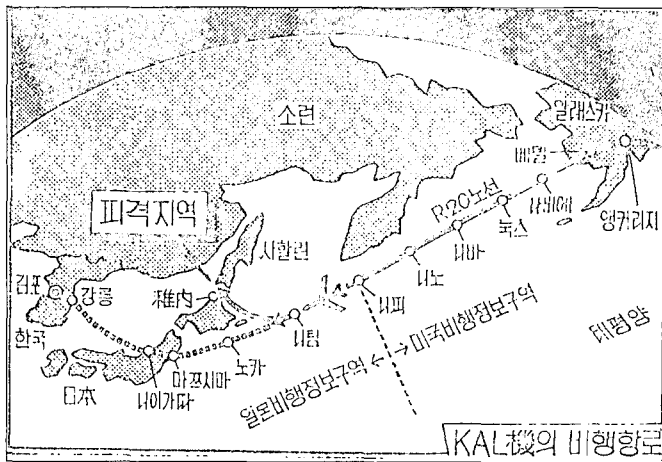


그림 12. 정돈된 모습의 필사지도(조선일보 1983년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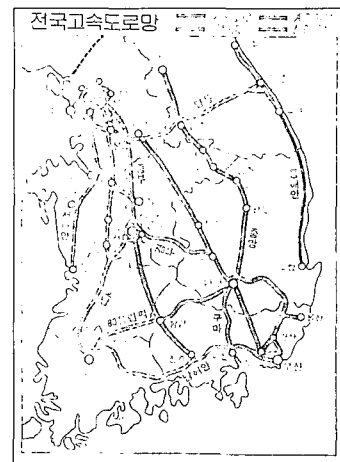


그림 13. 사식기를 활용한 지도(동아일보 1987년 7월 30일)

대고 필요한 부분을 그려 기본도를 완성한 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 흑백의 농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빗금을 치거나 제판시에 망판을 사용했다(그림 9, 10, 11). 이상과 같은 필사지도는 창간 초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등장한다. 필사지도 시기의 후반기에 제작된 지도는 필사 지도라 해도 창간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정돈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12).

한편, 미디어 지도는 그동안 일단이나 이단 정도의 작은 지도가 일반적이며 최근에 와서 비교적 큰 지도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한, 1998). 하지만, 1920·1930년대 제작된 지도 가운데에는 지도의 내용에 비해 지도가 상당히 크게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이는 소형의 정교한 지도 제작이 곤란했던 당시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년호 특집 기사나 기획 기사에 주로 등장하는 대형 지도는 당시 지도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문 편집진에서 시각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날 공들여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특집 기사는 뉴스 기사와 달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획되므로 지도의 완성도가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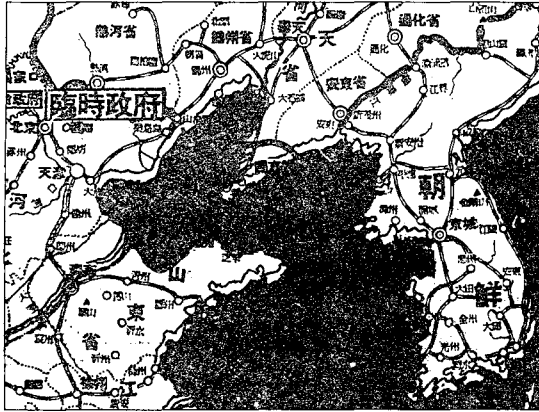


그림 14. 인쇄한 문자로 제작한 지도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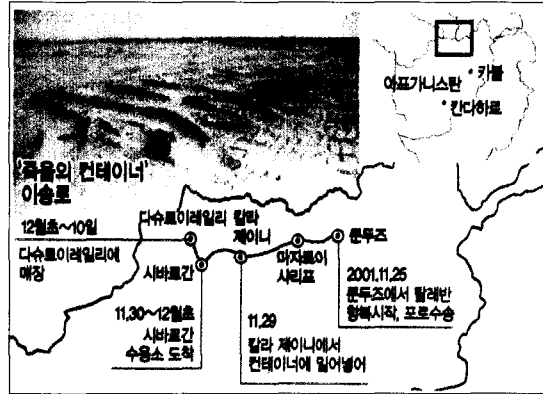


그림 15. CTS를 활용한 지도(동아일보 2002년 8월 20일)

시각적인 측면에 정성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 3) 사진 식자와 지도

사진 식자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사식기로 만든 문자를 오려붙여 작성한 지도가 등장했다(그림 13). 필요한 경우에는 스크린톤을 이용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지도는 금속으로 제판되어 인쇄된다(김정환, 1998). 사식기가 활용되던 시기에도 마감시간에 압박하여 발생한 사건을 다룬 지도는 사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지도의 지명은 물론 기사 제목까지도 필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식을 이용하기 이전에 등장한 지도 가운데 지명을 필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필요한 지명을 납활자를 이용하여 각각 인쇄한 후 각 문자를 오려서 해당 위치에 붙여 만든 것이다(그림 14). 이는 필사지도와 사식기를 이용한 지도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제작방식이다.

### 4) CTS와 지도

일부 언론사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CTS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두 신문사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인 제 4세대 CTS를 도입하여(동아일보는 1994년, 조선일보는 1992년) 기사의 입력에서 편집까지의 제작 전산화를 이루었다. 이는 납활자의 문선 과정과 지형 및 연판 제작 과정을 거치는 활판 제작 방식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며, 시각적으로 화려한 지면 제작이 가능하다(이

민규, 1994). 따라서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지도와 그래프 및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합성한 그래픽이 가능해졌다(그림 15). 이처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방식이 컴퓨터로 대체되면서 제작의 수월성이 확보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지도의 완성도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지도 제작에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되었다.

CTS를 통한 지도 제작과정에서 미술기자는 취재기자가 보낸 원고를 보고 필요한 지도를 지도책에서 찾아 스캔하여 모니터에 띄운 다음 이것을 기초로 필요한 내용을 그리고 글자를 집어넣어 완성한다. 여백이 많이 남으면 적절한 사진이나 그래픽 자료를 배치하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Illustrator나 Corel Draw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작성된 지도는 컴퓨터를 통하여 해당 지면에 전송되어 조판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필름으로 아연판이 제작된다.

지도 및 그래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동아일보: 편집아트팀, 조선일보: 편집미술팀) 우리나라의 지역별 지도책과 서울 및 수도권의 대축척 지도, 지번도 등 다양한 지도를 비롯하여, Mapart와 같이 국가별, 대륙별 기본도가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사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도는 높지 않으며, 오히려 NASA나 CIA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미 기사화 된 지역은 컴퓨터에 저장된 기본도를 불러들여 내용의 가감을 거쳐 지도를 제작하며, 미술팀 내에

다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기본도는 함께 공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작성해 놓는다. 외주 제작이 빈번한 주간지와 달리 외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례 신문사에서는 자체 구성원이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 한편, 두 신문사 미술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시각 디자인이나 응용 미술학 전공자들로서 지도학 분야에 대한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미술 전공자들이며,<sup>8)</sup> 그래픽 전담자와 지도 전담자가 정해져있기보다 필요한 작업을 서로 나누어 맡고 있어 지도 제작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요약 및 결론

미디어 지도는 지리 정보의 원천으로서 독자들의 국내외의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일반인을 위한 지리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지도를 비롯한 그래픽 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래픽 분야의 부서장이 신문 편집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신문사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하는 미디어 지도는 과거에 비해 보다 정교해지고 장식적이며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지도를 연구분야로 하는 저널 지도학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초기의 신문으로부터 최근에 발행된 신문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등장하는 미디어 지도의 양적인 성장과 미디어 지도의 유형 및 내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도 제작술의 진전에 따른 미디어 지도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지도는 한성순보에 등장하는 지구전도이며 출현 시기는 1880년대로서 영미권 미디어 지도의 출현 시기와 유사하다. 19세기 말 이후 미디어 지도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군사적 충돌이나 국제 분쟁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주택, 교통, 관광, 여가 등에 관한 지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도의 형태는 필사지도로부터 CTS 지도에 이르기까지 지도 제작술의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 註

- 1) 저널 지도학(journalistic cartography)은 의사 지도학(pseudo-cartography), 대중 지도학(popular-cartography), 그래픽 지도학(graphic-cartography)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2) Media Map Watch에 참여한 단체로는 Geographical Association을 비롯하여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the British Cartographic Society, the Royal Scottish Geographical Society, the Scottish Association of Geography Teachers 등이다.
- 3) 제국신문과 대한민보는 영인본이 간행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였다.
- 4)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오늘날의 신문과 달리 책자 형태이다.
- 5)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폐간·복간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 기	내 역	시 기	내 역
1920. 4. 1.	창 간	1920. 3. 5.	창 간
1940. 8. 10.	폐 간	1940. 8. 10.	폐 간
1945. 12. 1.	속 간	1945. 11. 23.	속 간
1950. 6. 28.	발행중지	1950. 6. 29.	발행중지
1951. 1. 10.	복 간	1950. 10. 23.	복 간

- 6) 지도 제작과 관련된 내용은 동아일보 편집아트팀장 강동영님과 조선일보 편집미술팀 김의균님과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했다.

#### 文 獻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3, 한성순보(영인본), 코리아헤럴드.

\_\_\_\_\_, 1983, 한성주보(영인본), 코리아헤럴드.

\_\_\_\_\_, 1983, 한성순보·한성주보 번역판, 코리아헤럴드.

김정환, 1998, 신문 정보그림의 이해와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동아일보사, 마이크로 필름.

\_\_\_\_\_, 축쇄판.

박신흥·송민정, 1991, 출판매체론, 경인문화사.

아세아문화사, 1985, 대한민보(영인본).

이민규, 1994, "컴퓨터마인드 제고와 교육방안: 취재·편집기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 컴퓨터, 111-138.

조선일보사, 1976, 신문인쇄기술, 조선일보사.

\_\_\_\_\_, 마이크로 필름.

- \_\_\_\_\_, 축쇄판.  
 차배근 · 오진환 · 정진석 · 이광재 · 이준수 · 신인섭, 2002, *우리신문 100년*, 현암사.  
 최기영, 1991,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최인진, 1992, *한국신문사진사*, 열화당.  
 최정호, *공용배 공역(1980년대 스미스 저)*, 1990, *세계 신문의 역사*, 도서출판 나남.  
 한국문화개발사, 1972, *황성신문(영인본)*.  
 한국신문연구소, 1976, *대한매일신보(영인본)*.  
 \_\_\_\_\_, 1977, *협성회회보*, *매일신문(영인본)*, 광신사.  
 한국 프레스센터, 1995, *한국100년 신문 10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5, *만세보(영인본)*, 아세아문화사.  
 \_\_\_\_\_, 1986, *제국신문(영인본)*, 아세아문화사.  
 LG상남언론재단, 1996, *독립신문(영인본)*.  
 Anderson, D. A. and Anderson, C. J. 1986, Weather coverage i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63(2), 382-385.  
 Balchin, W.G.B., 1985, Geo notes: media map watch: a report, *Geography*, 70(4), 339-343.  
 Gilmartin, P., 1985, The design of journalistic maps/purposes, parameters and prospects, *Cartographica*, 22(4), 1-18.  
 Green, D., 1999, Journalistic cartography: good or bad, a debatable point, *The Cartographic Journal*, 36(2), 141-153.  
 Harley, J., 1992, Deconstructing the map, in Barnes, J., and Duncun, J.,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Routledge, 231-47.  
 Henrikson, A., 1980, America's changing place in the world: from 'periphery' to 'centre', in Gottmann, J., (ed.), *Centre and Periphery: Spatial Variation in Politics*, Sage, London.  
 Jordan, T., 1973, *The European Cultural Area: A Systematic Geography*, Harper and Row, New York.  
 Leimer, J., 1982, *The Influences of the Technical Constraints and Personnel Limitations on the Quality of Maps in American Newspap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Monmonier, M., 1989, *Maps with the New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Journalistic Cartogra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Porter, P., 1985, Ten years ago today - Vietnam and the uses of cartography, a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Detroit.  
 Ristow, W., 1957, Journalistic cartography, *Surveying and Mapping*, XVIII(4), 369-90.  
 Rundstrom, R., 1991, Mapping, postmodernism, indigenous people and the changing direction of North America cartography, *Cartographica*, 28(2), 1-12.  
 Vujakovic, P., 1999, A new map is unrolling before us: cartography in news media representations of post-cold war Europe, *The Cartographic Journal*, 36(1), 43-57.

최초투고일 03. 01. 13

최종접수일 03. 03. 04